

## 한국파사드협회, 2017 국제기술세미나 개최

‘파사드의 혁신과 미래’ 주제… 신기술 홍보부스 ‘눈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한국파사드협회(회장 홍성철, 이하 협회)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파사드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한 ‘2017 KAFA 파사드 국제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협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국내외 파사드 저명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파사드 설계, 접합유리, 스마트 창호 등 최신 이슈와 관련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선 세미나 첫 발표는 BuroHappold의 윤병희 팀장이 맡아 Parametric Engineering에 대해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어 테크노폼 바우텍(TECHNOFORM BAUTECH)의 Yosuke Todoroki가 최적화된 파사드 단열솔루션에 대해 발표했으며, 쿠라레(Kuraray)의 Jennifer Schneider는 구조용 접합 안전유리 중간막의 성능비교 및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노스글라스(Northglass)의 Dirk Schulte가 건축용 유리 쉐라티와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대학교의 김성욱 교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폴딩형 파사드 설계 최적화 연구를

발표했다. 다우코닝에서는 Jack Guan가 BIB(Building Insulation Blanket)의 적용을 들어 파사드 혁신을 전달했고, 알루이엔씨의 황상근 상무는 건물 냉방에너지절감을 위한 스마트창호의 국내 개발현황을 강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J&S 한백의 정봉석 대표, 퍼마스틸리사(Permasteelisa)의 Nathan Burchell & Juergen Schuster,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진호 박사, 에커슬리 오 캘러헌(Eckersley O'Callaghan)의 James O'Callaghan 등 전문가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강연장 외부에 마련된 관련 자재 업체들의 부스에서도 열띤 홍보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LG하우시스부터 한국아존, 다우코닝, 알루이엔씨, 테크노폼, 노스글라스 한국총판 DYM, 쿠라레, 탑프라, 퍼마스틸리사 등 총 9개 회원사가 참여해 자사의 핵심제품 및 기술을 소개했다.

한국파사드협회 홍성철 회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파사드 국제세미나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파사드 관련 행사 중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라며 “올해 본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국내 창호 및 커튼월 산업 발전을 위한 규격 및 기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니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파사드협회는 지난 2014년 8월 출범해 국내 건축 외장 산업의 에너지부문 성능 향상 및 정부의 녹색건축 정책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NFRC(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단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Therm, Window, optic)에 대한 시뮬레이터 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2017 NFRC 인증 시뮬레이터 한국 워크숍을 진행한다.

1알루이엔씨와 다우코닝 2테크노폼 3(왼쪽부터) 노스글라스, 쿠라레, LG하우시스 4한국아존

